

復讐 對 慈悲

—The Merchant of Venice—

全 濟 玉

(英文科 教授)

序 言

Shakespeare의 이 作品은 筆者가 40餘年 前 大學在學中 처음으로 읽은 戯曲이니만큼 感銘 깊고 그때 받은 印象이 아직도 회기하게 남아있다. 그後 1957年 7月 美國에서 歸國길에 London에 잠시 滯留하는 동안 틀을 내서 Waterloo Bridge 바로 아래에 자리잡은 Old Vic Company劇場에서 때마침 夏季公演으로 이 作品이 上演되어 觀劇할 機會가 있었다. 그때 Shylock로 扮裝한 人物은 까만 옷에다 마치 서울거리에 往年에 있던 자물쇠장사와 恰似한 모습으로 앞가슴에 여러 줄로 가물쇠를 가득 달고 나왔는데 첫눈에 벌써 고약한 印象을 풍기기에 充分하였다.

그러나 이 劇을 其後 數次 읽어가면서, 弱者를 擁護한다거나 또는 論理的 矛盾에 앞서 基督教徒들 (특히 16·17世紀에)의 偏見과 先入感이 얼마나 作用하였는가를 알게 되어 不滿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Shylock 같은 者를 辯護하거나 말로라도 감싸고 싶은 생각은 秋毫만큼도 없다.

基督人 中에도 Antonio는 利潤을 追求하여 成功한 商人인데 그가 지니고 있는 猶太人觀은 그 時代에 흔히 볼 수 있는 反感, 惡感情 乃至는 敵對感을 如實히 나타낸다. Rialto하면 요즘말로는 證券去來所같은 商人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에서 空空然히 Shylock를 미워할 뿐 아니라 辱하고 침을 뱉는 등 갖은 行悖를 부리던 Antonio가 友情으로 親舊인 Bassanio가 急錢이 必要하다 하나, 何必이면 平素에 賤視 蔑視하고 人間 以下로 取扱하던 Shylock에게 貸金을 要請한 것부터 品位를 損傷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貸金辨濟不履行時에는 借用人的 肉體에서 어느 곳이든지 1 pound의 살을 베어내기로 한 것은 貸金業者인 Shylock의 兇惡한 意圖를 나타낸 것이로되 그것을 借用證의 條文에다 記入하고 同意한 Antonio에게도 적지 않은 失策이 있으니, 基督人的 體面으로서도 그와 같이 殘忍한 行爲는 反對하였어야 마땅하였을 것을 얼마나 急錢이 必要하였길래, 그런 條項의 削除를 말하지 않고 그대로 承諾한 것은 저오기 遺憾된 일로 後日의 不祥事의 씨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破産하여 約束履行을 못하게 된 Antonio가 裁判場에서 殘忍無道한 Shylock의 被告가 되

어 窮地에 몰릴 때, Portia가 男裝하고 辯護人으로 登場하여 그를 救出하고 Shylock를 困難한 地境으로 몰아넣고 財産沒收와 生命까지 危脅하여 強制로 基督人으로 만든 것은 아무리 보아도 順理롭지 못하다. 더우기 살 1pound를 도려내는데 한방울의 流血만 있어도 유대인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한 것은 法理論으로 보아도 無理하고 거의 奇論 怪辯이라 하겠다. Shylock가 고약하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으나 基督敎徒라면 너의 敵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에도 어긋난 處事이다.

最近 들리는 바에는 英·美國에서 *The Merchant of Venice*를 敎科書에서 뺀 것은 이것이 靑少年들에게 不必要한 惡感情을 人間 사이에 刺戟시킬 것을 念慮하여서라 함은 晩時之嘆은 있으나 多幸한 일이다.

若干이라도 이 劇에 나타난 反猶太人感情이 正當化된다면 往年의 Nazi의 無慈悲한 유대인 大量虐殺도 正當化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事件을 素材로 한 作品들도 出版禁止 등의 措置가 取해져야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Shakespeare에게는 그 當時 時代相을 考察할 때 責任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劇作家는 觀衆이나 讀者들의 趣向이나 그들의 嗜好를 無視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런 것은 Macbeth에서도 Macbeth와 Banquo가 共犯으로 Duncan王을 弑害한 것이라고 하는데도 James I가 Banquo의 後裔임을 堪案하여 Macbeth 單獨犯으로 翻案한 例가 있다.

宗派 또는 敎理問題는 함부로 言及하기조차 어려우나, 한 宗教가 다른 宗教人을 보고 異敎徒 異端視하고 또 그 敎派에서는 다른 敎徒들을 僞善에 찬 者들 또는 偶像崇拜者들 하고 비웃고 誹謗하는 것은 傳道나 敎理普及에도 많은 支障을 받을 것이다. 어느 敎人이라도 唯我獨尊의 我執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多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The Merchant of Venice*도 어느 宗教에도 加擔함이 없이 超越한 立場에서 읽는다면 더욱 吟味 鑑賞할 수 있을 것이다.

I. Bond와 Casket Story

*The Merchant of Venice*는 Bond Story와 Casket Story를 잘 섞어撰 作品이며, Ring Story까지 합치면, 그 source는 세 가지도 될 수 있으나 爲先 두가지 story에 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er Giovanni Fiorentirro라는 別로 알려지지 않은 作家가 執筆하고 蒐集한 Il Pecorone (마보)라는 短篇小說集의 第4日の 첫번 이야기로 나오는 Giannetto의 이야기 줄거리를 만 것이 Bond Story의 plot인 것 같다. 이 밖에도 The Venesyon Comodye(1594年 上演)와 Thomas Dekker의 The Jew of Venice(날짜 未詳) 등이 Shakespeare의 作品과 關聯이 있는 듯 하나 상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다만 題目이 같다는 것 뿐이다.

Il Pecorone에서는 Ansaldo의 代子(godson)인 Gianneto가 Belmonte의 富裕한 女子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女人의 條件은 만약 男子가 失敗할 경우에는 그의 財産을 沒收한다는 條件이 따랐다. Gianneto는 두 번 다 藥을 탄 술을 마시게 되어 失敗하자 財産을 잃은 그는 Ansaldo에게는 배가 破船했다고 거짓을 傳하게 된다.

이때 Ansaldo는 그 말을 믿고 그에게 세번째 배를 차려주기 위해서 돈 一萬 ducat을 유대인에게 꾸는데 St. John's Day까지 못갚게 되면 人肉 한 pound를 배어내기로 한다.

술을 마시지 말도록 警告를 받고 Gianneto는 Belmonte의 女人과 사귀고 結婚한다. 그러다가 期日인 St. John's Day에 이르러 그의 婦人이 十萬 ducat을 準備하여 Gianneto를 Venice로 보내고 自身은 辯護士로 假裝하여 그의 뒤를 따른다.

유대인은 돈을 拒絶하고 人肉을 要求한다. 이때 辯護士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人肉 한 pound를 떼어 가도록 하자, 유대인은 證書를 짓고 Ansaldo는 釋放된다. Gianneto는 十萬 ducat을 謝禮로 辯護士에게 傳하려 하나 辯護士는 굳이 그 代身 받지를 願한다.

Gianneto가 Ansaldo와 함께 Belmonte로 돌아오니 婦人이 自己가 준 받지를 다른 愛인에게 주었다고 非難한다. Gianneto는 눈물을 흘리며 顛末을 說明한다.

좀 異常하게도 Ansaldo는 Gianneto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勸한 女人과 結婚하게 되는 것이 대충 줄거리인데, Shakespeare의 *The Merchant of Venice*에서는 이와 비슷한 plot이나 여러 군데를 고쳤다.

이 밖에도 Shakespeare가 쉽게 읽었으리라고 믿어지는 作品이 또 있다.

The Ballad of the Crueltie of Geruntus(1950年 以前作品)에서의 演說文章中 “돈대신 基督教人의 살 한 pound를 願한 유대인에 關하여”라는 것으로 아마 1596에 Anthony Munday가 *Les Histories Tragiques*에서 翻譯한 作品이다.

Stephen Gosson의 *School of Abuse*(1579年)에서 *The Jew*라는 戯曲이 있는데 여기서는 世俗的인 選別者의 慾心과 高利貸金業者의 殘忍性을 敘述하고 있어 Casket과 人肉 한 pound 이야기가 방탄하게 表現되어 있으나 原本 *The Jew*는 現存하지 않는다.

The Casket Story는 大概 다음 세가지 中の 하나로 推定된다. John Gower의 *Confessio Amantis*는 8音節 對句로된 三千五百行의 英詩이며, 들체는 Boccaccio의 *Decameron*, 그리고 可能性이 第一 두터운 것으로는 R. Robinson이 翻譯한 *Gesta Romanorum*(1595年)인데 14世紀頃に 大陸에서 編纂된 說話集으로 첫번 印刷된 것은 1472年이다.

그러나 箱子의 內容에 있어서는 다르며(구리箱子에 刻字된 것은 전혀 다르고 두 箱子의 것은 서로가 뒤바뀌었다.), 箱子場面 첫머리에 나오는 「inscult」라는 單語는 Morroco公爵이 使用하는데, Shakespeare의 다른 어떤 作品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고 다만 Robinson의 翻譯에만 쓰여져서 더욱 分明해 진다.

原來는 Casket plot에서도 藥탄 술(酒)을 썼으나 그것의 舞臺上의 效果를 堪案하여

Shakespeare는 Casket로 바꾼 것으로 보이며, 더우기 留意해야 할 것은 1579年 以前에는 劇作家가 이와 같은 두개의 plot를 하나로 묶어서 單一劇으로 쓰는 技巧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Shakespeare가 大略 1594~6年 사이에 執筆한 *The Merchant of Venice*는 이와 같은 첫번 試圖이며 特히 그가 1605~6年頃に 쓴 四大悲劇의 하나인 *King Lear*에서 Lear王과 세 딸 이야기와 Gloucester와 두 아들 이야기를 잘 交合시켜 切절한 悲劇으로 꾸며놓은 것이다.

II. Shylock와 Barabas

*The Merchant of Venice*의 主人公은 Shylock이며 이 劇은 Shylock의 劇이라 부를 수도 있는데, Shylock만을 中心으로 觀察하면 果然 이 劇이 喜劇이나 또는 悲劇이나 하는 것도 論難이 많이 되는 問題劇이다.

充分한 理由와 整然한 論理를 갖고 平素에 當한 억울함을 분풀이 하겠다는 유대인 Shylock는 그 나름대로 끝까지 굽힐줄 모르다가 極端인 論理에 逢着하여 自滅의 길을 걷게 되고 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Elizabeth時代思潮와 作家가 지닌 對유대인觀과 高利貸金業者에 對한 嫌惡症을 如實히 反映한 것이다.

Shylock이란 이름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敵意를 일으키기에 充分한 語義를 지니고 있었으니 Hebrew語 Shalach도 James王時代의 聖書翻譯에 依하면 貪食漢이란 뜻으로 使用되었고, Elizabeth時代에는 猛鳥를 貸金業者의 傳統인 象徴으로 써왔다. 貸金業은 돈을 빌려주고 利子를 받는 일인데 이것은 中世紀부터 不道德한 行爲일 뿐더러 自然에 對해서도 逆用 惡用하는 일로 思料되어 왔다.

Nicholas Rowe는 言及하기를

“There appears in it such a deadly Spirit of Revenge, such a savage Fierceness and Fellness, and such a bloody designation of Cruelty and Mischief, as cannot agree either with the Stile or Characters of Comedy”

[Some Account of the life of Mr. William Shakespeare, in Shakespeare Works, ed. Rowe 1709]

또한 Heinrich Heine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When I saw this piece played in Prury Lane there stood behind me in the box a pale British beauty who, at the end of the fourth Act, wept passionately, and many times cried out, ‘The poor man is wronged!’……”

When I think of those tears I must include *The Merchant of Venice* among the tragedies, although the frame of the work is a composition of laughing masks and sunny faces, satyr forms and amorets, as though the poet meant to make a comedy.”

[Shakespeare's Mädchen und Frauen, 1839. 1891, C.G Leland 譯]

以上 두가지 意見 모두가 充分한 根據가 있으며 어느 程度 바른 見解라고 볼 수 있다.

主人公인 Shylock을 中心으로 觀察할 때 이 劇은 喜劇이라기 보다는 悲劇쪽에 더 가깝다고 하겠으나, 作家는 이 劇을 喜劇으로 꾸미고자 처음부터 意圖한 것 같이 보인다.

아마 이 劇이 第4幕으로 終結되었다면 悲劇이라고 結論지을 수도 있겠으나 第5幕에서는 Shylock은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Portia가 男裝으로 變하여 Bassanio의 들도 없는 親舊인 Antonio의 生命을 救出해내고 그의 生命을 殘酷하게 노렸던 Shylock을 窮地에 몰아넣고 財産을 沒收하고 及其他는 基督教人으로 만든 다음, 사랑, 낭만, 音樂이 充滿한 Belmont에서 Bassanio와 Portia, Gratiano와 Nerissa, Lorenzo와 Jessica 등 세 쌍이 成婚되는 happy-ending으로 끝마치는 것을 보면 comedy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簡單하게 말함으로써 沈코 *The Merchant of Venice*에는 悲劇의인 要素가 없거나 缺如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觀點에 따라 또는 人物에 따라 많은 差異와 論難點이 남아있게 되었다.

Shakespeare가 이 作品을 쓰기 5~7年前인 1589년에 이미 Christopher Marlowe는 *Jew of Malta*를 出版하여 世上의 耳目을 끈었는데, 그도 이 作品을 읽고 影響을 받았으리라고 짐작된다.

두 作品 모두 富裕한 유대인이 主人公으로 各其 딸이 하나씩 있으며 基督教人에 對한 怨恨과 不平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Barabas는 처음부터 利己의이며 苛酷한 怪物로 登場한다. 動機와 目的이 不純할 뿐더러 平常人의 價値觀은 저버리고 있었다.

*The Jew of Malta*에서는 Machiavel에 依한 prologue가 있는 다음 第1幕이 始作되며 Barabas가 “discovered in his counting room, with heaps of gold before him”으로 屢萬金을 앞에 두고 生前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하루종일 셀 수 있을 만큼 巨富의 金力을 誇示한다. 그는 처음부터 守錢奴로, 돈을 버는 데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所謂 Machiavel의 手法을 그대로 쓴 者이다.

財産의 半을 獻納하라는 命令을 拒逆하다 全財産을 沒收當하게 되고 살던 집마저 修女院으로 되고나니, 딸 Abigail을 시켜 金錢 寶貨를 창밖으로 던지게 하며 이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은 참으로 可觀이다. 처음에는 若干의 威嚴性도 지녔으나 基督教人들에게 不當한 迫害를 입고 나서는 人間性을 喪失하고 殘酷性이 露出되어 相對를 가리지 않고 죽이게 되며 딸, 修女, 딸의 戀人들도 모조리 죽이고 마침내는 自身도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빠져 無慘한 最後를 맞는데 누구의 同情도 얻지 못한다. Barabas의 後裔로는 *Titus Andronicus*에 나오는 Aaron the Moor, Richard III, *Othello*의 Iago, *King Lear*에 나오는 Edmund 등으로 모두 極惡 兇惡한 者이다. Shylock도 邪惡하기는 每一般이나 그래도 이들에 比하면 人間性은 지녔고 한편 이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同情心도 떠오르게 된다.

Jessica와 Abigail은 共通點이라고는 女性이라는 것과 유대인이라는 것 뿐이다. Abigail은

그래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그가 그녀의 愛人 Lodowick와 Mathias를 故意로 決鬪시켜 두 사람을 죽게 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背叛하여 修道院에 들어간다. 그러나 Jessica는 基督教人들과 짜고 아버지를 亡身시키고 돈까지 훔쳐낸다.

Shylock도 역시 奸惡함과 人間 以下の 猛獸같은 報復心에 사로잡혀 있어, 마침내 平素의 怨恨을 자신이 人間白丁이 되어 갈겠다는 容赦받을 수 없는 心情을 固執하다가 自滅의 길을 걸게 된다.

Shylock가 充分한 理由와 整然한 論理가 있다는 것은 그가 平素 去來處에서 Antonio에게 받은 受侮와 屈辱으로, 요즈음 생각하면 人權宣言에 對한 重大한 違反事項이라고 指摘될 것이다. 그러나 作家는 Shylock의 人種과 職業 두가지에 對해 嫌惡感을 일으키고 있다.

Shy. Antonio shall become found,—well

Bass. May you stead me? Will you pleasure me? shall I know your answer?

Shy. Three thousand ducats, for three months, and Antonio bound.

Bass. Your auswer to that?

Shy. Antonio is a good man.

[1. 3. 6-12]

이것은 Shylock가 高利貸業者의 根性을 充分히 나타낸 것으로 그가 Bassanio와 말할 때는 金準備가 되지 않았거나 Antonio의 信用度를 疑心하여 金으로 망서리는 체하지만, 其實은 好機가 到來해서 平素 느낀 復讐心을 此際에 갈겠으며 그 方法과 條件을 內心 摸索하고 있으니 聽衆들의 嫌惡感이 대단할 것은 分明하다.

Elizabeth時代에 있어서도 貸金業은 信徒 사이에는 禁止되었으나 一般人에게는 낮모르는 사이에는 許用된 것 같아 贊反兩論인듯 하나 좋은 편은 아닌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現在를 두고 본다면 國際間 貿易 등에서 利子없이 去來되는 例는 거의 없다시피 되었고 個人間에서도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金錢去來라 하면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것이 利子인 것은 常識이다.

Shylock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If I can catch him once upon the hip,

I will feed fact the ancient grudge I bear him

He hats our nation;

[1. 3. 43-5]

In the Rialto you have rated me

About my moneys and my usances:

Still have I borne it with a patient shrug,

For sufferance is the badge of all our tribe.

You call me misbeliever, cut-throat dog,

And spit upon my Jewish gaberdine,
And all for use of that which is mine own.

[Ⅲ. 3, 104-10]

民族的인 差別이나 信仰上의 異教徒에 對한 賤待도 견디기 어려우나, 그것보다도 職業上 差等待遇는 Shylock에게 더욱 苦痛스러운 일이다. Antonio가 無利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Shylock에게는 營業上 致命的 打撃이 아닐 수 없어 마침내 이에 맞서 싸우려드는 利子를 받아서는 안되므로 걸으로는 유대인인 Shylock도 基督教徒의 慈悲心에 挑戰하는 셈치고 無利子로 하며 나머지 條項에다는

let the forfeit
Be nominated for an equal pound
Of your fair flesh, to be cut off and taken
In what part of your body pleaseth me.

[I. 3. 145-148]

Antonio는 元來 유대인을 미워하고 財力上으로도 自信滿滿하며 우습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Shylock을 기특하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웃으며, 설마하는 생각조차 할 사이 없이 同意한 일이 나중에는 두 사람에게 큰 困辱과 生命의 危脅을 치루게 될 줄을 어찌 알 수 있었을까!

偏重된 感도 없지 않으나 Shylock의 守錢奴性과 邪惡한 復讐心이 如實하고 Antonio는 善良한 基督人 商人이라는 것과 去來相對를 잘못 골라 犧牲될 것이 念慮되는데 人肉 1 pound의 用途를 따지다 Shylock가 말하는

Hath not a Jew eyes?
hath not a Jew hands, organs, dimensions, Senses, affections, passions? fed with the same food, hurt with the same weapons, subject to the same diseases, healed by the same means, warmed and cooled by the same winter and summer, as a Christian is? If you prick us do we not bleed? if you tickle us, do we not laugh?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Ⅲ. 1. 54-61]

과 딸 Jessica가 말하는 것은

Alack, what heinous sin is it in me,
To be ashamed to be my father's child!
But though I am a daughter to his blood,
I am not to his manners. O Lorenzo,
If Thou keep promise, I shall end this strife,

Become a Christian, and thy loving wife.

[I. 2. 16-21]

어느 면으로 보면 凶惡한 者에 對한 天罰이나 自業自得 같은 感도 있겠으나 人間의 基本權을 呼訴하는 것과 내 子息에까지 背叛당하고 더구나 夢寐間에 잊지 못하고 怨恨을 갖겠다는 基督教人에게 딸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은 惻隱함과 若干의 人間의 同情마저 들게 된다.

Shylock을 흔히 食人鬼(Ogre)라고 부르지만 Barabas나 Aaron 또는 Richard III와는 달리 그래도 人間性을 지닌 者인만큼 作家도 이 點을 留意하여 Shylock의 心性과 行實을 充分히 描寫하였던 것이다.

III. Antonio와 Bassanio

Antonio가 Shylock의 對役이 되기에는 外觀上 너무 甚한 差異를 보이는 것 같다. Shylock이 基督教徒에 對한 受侮와 劣等感 또는 營業上 받은 損失들을 인젠가는 復讐하려고 불타는 反面, Antonio는 너무도 消極的이고 悲觀的이며 人生自體에 對한 拒否的인 態度를 나타낸다.

그러나 Antonio도 이런 軟弱한 面만 있는 것은 決코 아니고 그가 유대인을 憎惡하는 데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Shylock가 平素 Antonio에게 받은 人間 以下の 虐待과 갖은 困辱을 털어놓자 Antonio는 서슴없이

I am as like to call thee so again,
To spit on thee again, to spurn thee too.

[I. 3. 127-28]

와 같은 過激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外見上으로는 거의 厭世症에 걸린 사람 같으나 心中에는 基督教人의 自慢과 自信에 가득차 있고 異教徒에 對한 賤視 輕蔑에는 주저함이 없다.

作家는 이러한 兩面을 考慮하여 처음에는 相對가 되지도 않을듯한 Antonio를 Shylock에게 붙여놓음으로 Shylock에 對한 憎惡感을 助長시키고 Antonio에 對해서는 同情心이 깃들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Antonio와 Bassanio는 天下無二의 親舊인데 이들의 性格 亦是 天地 差異가 있다. Bassanio는 恒時 놀기를 좋아하고 돈 잘쓰는 好色漢인데 비해 Antonio는 結婚한 바 없고 遊興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이 相反되는 性格을 가진 者가 너무도 親熟해서 身命과 財産을 모두 바쳐가며 相扶相助하려는 데는 적지 않은 原因이 있을 것이니 Graham Midgley의 "The Merchant of

Venice: A Reconsideration”(1960)에 依하면 或時 homo sex나 gay group인가 하는 疑心도 드는데 Elizabeth時代에 이런 우리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 劇의 劈頭에 나타나는 Antonio의 台词에는

In sooth, I know not why I am so sad.
It wearies me; you say it wearies you;
But how I caught it, found it, or came by it,
What stuff 'tis made of, whereof it is born,
I am to learn;
And such a want-wit sadness makes of me,
That I have much ado to know myself.

[I. i. 1-7]

이와 같이 Antonio가 憂鬱症이나 悲觀的인 態度는 歸港을 기다리는 船團 때문도 아니고 或時나 財産上의 損失 等を 兪려해서가 아닌 것은 分明하며 元來 性稟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慎重한 見解가 될 수 없다. 어쩌면 돌도 없는 親舊인 Bassanio가 結婚함으로써 짝을 잃게 됨으로 일어나는 感情인지 모른다.

더구나 Antonio가 大公(Duke) 앞에서 Shylock와 裁判하는 마당에 있어 Bassanio에게 건네는 말은 이미 生에 對한 愛着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죽음을 覺悟한 바 있으며 親舊에게 最後로 부탁하는 말이 내가 죽거든 碑銘이나 써달라고 할 程度이다.

I am a tainted wether of the flock,
Meetest for death. The weakest kind of fruit
Drops earliest to the ground: and so let me,
You cannot better be employ'd, Bassanio,
Than to live still, and write mine epitaph.

[IV. I. 114-118]

처음에도 指摘한 바 있으나 이와 같이 消極的이며 厭世觀에 차 있는 Antonio가 Shylock 같이 復讐하고야 말겠다는 挑戰的이며 殘忍性을 지닌 兇惡한 者と 맞 相對가 된 것은 그 原因이 있음에 틀림 없다.

Antonio는 性格이 溫順한 紳士임에는 틀림없고 돈을 無利子로 꾸어주는 善心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러한 資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가 先代의 財産을 相續한 것도 아니고 海外貿易으로 自手成家하였다면 貸金業에 依한 致富와는 區別된다. 하지만 그 도 또한 商業經營 卽 利生生利라는 範疇는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Shy. When Jacob grazed his uncle Loban's sheep,—
This Jacob from our holy Abraham was,
As his wise mother wrought in his behalf,

The third possessor; ay, he was the third,—
 Ant. And what of him? did he take interest?
 Shy. no, not take interest; not, as you would say,
 Directly, interest.

[I. 3. 68-74]

直接的으로 利子를 주고 받지는 않았으나 間接的인 利益이나 利子를 받은 바 있다는 말
 이니, Shylock쪽으로 보면 表面上으로는 慈善行爲나 施惠같이 보이나 그 밑바닥에는 利益
 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商行爲에 依한 所得이라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實業家로서 商道德을 지키고 萬人의 稱讚을 받고 있으나 內心으로는 憂鬱症과 슬
 픈 人間過程을 견도록 運命지어져 있는 Antonio에게는 누구보다도 Shylock가 그지없이 밋
 게만 보일 것이다.

Antonio와는 反對로 Antonio의 內面的인 脆弱性을 Shylock는 外部로 露出시키고 있어
 모든 사람들의 偏見과 憎惡의 對象이 되고 있는 點은 Antonio가 外的으로 靜寂함을 느끼는
 것처럼 Shylock은 內的인 孤獨을 벗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Antonio가 Shylock를 人間 以下로 憎惡하고 賤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一種의
 自虐行爲 같은 것인지 모른다. Antonio는 結婚한 바 없는 獨身者이며 그는 女性이나 音樂
 같은에는 趣味가 전혀 없는 正常人은 아닌 것으로 그는 돈도 滿足할만큼 벌어서 더 以上
 富의 蓄積에만 精力을 쏟을 사람도 아니다. 다만 唯一한 親友인 Bassanio에게는 이미 相當
 額의 負債가 있는데도, 그가 新婦를 얻는데 必要하다는 적지 않은 資金을 서슴지 않고 가
 장 싫어하는 Shylock에게서 빌려주는 것도 正常은 아니다.

Bassanio는 性格上으로도나 人品으로 볼때 Antonio와는 全然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利害를
 超越한 眞實한 友誼를 지니고 서로 犧牲을 아끼지 않는 터이다.

Bassanio는 本足 虛張盛勢하는 氣風이 多分히 있다.

Bass. 'Tis not unknown to you, Antonio,
 How much I have disabled estate,
 By something showing a more swelling port
 Than my faint means would grant continuance.

[I. 1. 122-125]

Bass. In my school days, when I had lost one shaft,
 I shot his fellow of the self-same flight
 The self-same way, with more advised watch,
 To find the other forth;

[I. 1. 140-43]

총계 말하면 冒險이나 間一髮의 危機를 잘 모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生來의

性稟이 虛浪放蕩하여 自己財産은 이미 蕩盡한지 오래며 乃終에는 窮餘之策으로 富裕한 집 딸에게 장가들어 그 돈으로 債務를 整理하고 人生도 즐겨 보겠다니 사귀기 힘든 사람이다.

Antonio는 이러한 허물을 모두 잊고 다만 友情만을 생각하며 犧牲까지 覺悟하고 保證人이 된 것은 債務者인 Bassanio가 信用이 없든지 적어서일 것이다.

이와 같이 親舊의 財力을 保證으로 하여 어려운 돈을 求해가지고는 Portia앞에서 行勢하는 Bassanio는 風身이나 言辯이 뛰어난 男性다운 사람이였음에 틀림없고 그동안 花柳界에서 俗物의 經驗이 쌓인 것도 틀림없다.

Bass. The seeming truth which cunning times put on
To entrap the wisest. Therefore, thou gaudy gold,
Hard food for Midas, I will none of thee;

[Ⅲ. 2. 100-102]

무엇이든 손에만 대면 그것이 金으로 變하게 되었으나 乃終에는 그의 飲食과 딸까지 金이 되니 그 神通力을 없애 달라고 부탁한 Midas王의 古事를 들어서 말한 것인데, 作家가 이런 뜻에서 매우 ironical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銅櫃에 새겨진

Who chooses me must give and harzard all he hath.

[Ⅲ. 7. 9]

Bassanio의 立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니 即 그가 Shylock에게서 빌려온 借用金과 自己 때문에 Antonio가 적어야 할 危險이 그대로 적혀있다.

Bassanio의 觀喜가 채 始作되기도 前에 Antonio의 船團이 難破되었다는 悲報가 傳해지자 親舊의 生命이 危機에 處하게 되니 眞實한 親友의 값어치를 깨닫는다.

Bass. The dearest friend to me, the kindest man,
The best-conditioned and unwearied spirit
In doing courtesies; and one in whom
The ancient Roman honour more appears
Than any that draws breath in Italy.

[Ⅲ. 2. 293-97]

IV. Portia의 사랑

Portia와 Belmont場面은 Shakespeare가 創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orta는 浪漫的인 童話의 公主처럼 나타난다.

Portia는 처음부터

By my troth, Nerissa, my little body is aweary
Of this great world.

[I. 2. 1-2]

이런 心情은 無限한 財物, 才致와 아울러 美貌를 지니고 있으니 許多한 求婚者들이 世界 到處에서 줄을 잇다시피 雲集하나 嚴父의 遺志에 따라야만 되는 데다가 Portia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세상살기가 피곤하고 이미 倦怠感을 느꼈는지 모르는 것이다.

Casket story의 test에는 이미 各國의 貴公子들이 모두 當當히 나타났다가 一顧의 價値도 찾을 수 없는 卒丈夫로 取扱되어 相對할 수 없게 되었으며, Morrocco公爵이 擇한 金櫃에는

Who Chooses me shall gain what many men desire.

[II. 7. 5]

모든 男性의 所願이 이루어진다니 더할 바 없고 金은 金櫃에서도 으름가는 것이니까 그 도 이것이면 될 것으로 믿고 잠았으나 意外에도 그 속에서

"All that glisters is not gold"

[II. 7. 65]

라는 옛 格言과 함께 外華와 內面이 다른 것을 알게되니 失意에 빠졌고, Arragon公爵도 操心스러이 選別한 銀櫃에는

Who chooses me shall get as much as he desires.

[II. 9. 35]

幸福은 慾心이나 欺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分數대로 얻어질 것이니 이것이 가장 可當하다고 믿었으나 그 속에서는 意外로 눈감박이는 바보像이 나오고, 또한 글로는

"The fire seven tiures tried this;
Seven times tried that judgement is
That did never choose amiss.
Some there be that shadows kiss;
Such have but a shadow's bliss:
There be fools alive, iwis,
Silver'd o'er; and so was this.

[II. 9. 63-68]

라고 하니, 그 역시 Portia의 相對로는 될 수 없는 運命으로 無慘히 敗退하고 만다.

그러나 Bassanio에 關係서는 미리 들은 바도 있고 天意가 作用하였는지, Portia가 自退해 서 積極性을 떨뿐 아니라 농칠세라 모든 事前準備와 hint까지 提供할 程度이니, portia의 哀切한 所願은

If you do love me, you will find me out
 Nerissa and the rest, stand all aloof.
 Let music sound while he doth make his choice;
 Then, if he lose, he makes a swan-like end,
 Fading in music.

[Ⅲ. 2. 41-45]

잇따라 노래로 hint를 주니,

Tell me where is fancy bred,
 Or in the heart or in the head?
 How begot, how nourished?
 Reply, reply.
 It is engendered in the cyes,
 With gazing fed; and fancy dies
 In the cradle where it lies.
 Let us all ring fancy's knell;
 I'll begin it,—Ding, dong, bell

[Ⅲ. 2. 63-71]

Bassanio는 이에 쉽게 알아차린다.

but thou, thou meagre lead,
 Which rather threatenest than dost promise aught,
 Thy paleness moves me more than eloquence;
 And here choose I. Joy be the consequence!

[Ⅲ. 2. 104-07]

그가 擇한 當舖에는 틀림없는 아름다운 Portia의 肖像이 들어있었다.

大概 喜劇에서는 最終 第5幕에서 苦難끝에 happy-ending으로 幕을 내리는 것이 常例로 *The Merchant of Venice*는 第3幕 2場에서 이미 成婚을 시킨 것은 異例이다.

애타며 초조하게 기다리던 結婚이 이루어졌으나 그것도 瞬間 잇달아 災殃이 나타나니 Portia에게도 好事多魔는 例外가 아닌상 싶다.

이 劇에서는 人間의 二大惡性이라 할 수 있는 復讐와 猜忌 中에서 前者를 中心으로 plot가 展開된다. 이와 反對되는 慈悲心을 나타내는 Portia와의 對決에서 어느 쪽이 勝利를 거두나 가름하고 있다.

오늘의 幸運을 實現시켜준 Antonio의 生命이 傾刻에 놓인 것을 짐작하고 Portia는 이미 男便과 一心이 되어 모든 財産을 다 바쳐서라도 그를 救할 것을 決心하며, 男便을 窮地에서 救出하여 幸福한 新婚生活을 營爲해안겠다는 一念에서 男裝을 하고 辯護人으로 登場하는데 被告를 擁護하는 線을 넘어 스스로가 被告가 되어 裁判을 받는 處地로 臨하고 있다.

當時는 아직도 女優가 舞臺에 서기 前이기 때문에 女優代身 男兒를 쓰던 慣習이였으므로 Portia의 男裝이 어울리지 않을 理는 없다.

Portia가 法廷에서 처음 물었던 臺詞가 意味慎重하다.

Which is the merchant here, and which the Jew?

[W. 1. 172]

商業과 貿易의 港口인 Venice에서는 外觀上으로는 사람을 識別하기 困難하였으며, Antonio는 商人이라 하지만 名聲이 높고 良心을 가진 이 땅위에는 드문 착한 사람이며, 한편 Shylock는 비단 猶太인 뿐만 아니라 當時에는 高利貸金業이라면 基督人社會에서는 娼奴와 같이 賤待 滅視 憎惡의 對象인 것은 틀림없다.

처음에는 相對方은 돈이면 그만이니까 달라는대로 주도록 Bassanio에게 부탁할 만큼 Portia는 손쉬게 일이 끝날줄 알았으나, 막상 法廷에 나와서 兇惡한 猶太인을 對하고 보니 그러한 妥易한 생각은 오히려 부끄러울 程度였다.

Por. Do you confess the bond?

Ant. I do.

Por. Then must the Jew be merciful.

[W. 1. 178-180]

잇달아 有名한

The quality of mercy is not strained;
It droppeth as the gentle rain from heaven.
Upon the place beneath: it is twice blest;
It blesseth him that gives, and him that takes:

[W. 1. 182-85]

하고 繼續되는 이 말은 아마 Hamlet의 「To be or not to be」의 다음 가는 名臺詞로 實로 宗教的인 意義를 갖고 모든 사람을 說得시키는데 充分한 말이다. 그러나 慈悲는 Portia 말대로 他人의 強要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리듯이 自然스럽고 順理에 依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Shylock는

On what compulsion must? tell me that

[W. 1. 181]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는 理致로는 通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契約書에 明示한대로 支拂不能時에는 人肉 1pound를 恣意로 떼어간다는 것만을 主張하며 모든 사람들의 勸誘나 忠告도 뿌리치고 있다.

Shylock와 Portia의 對決은 法條文 對 法精神이라 할 수 있고, 그가 物質的인 面만 固執하는데 比하여 Portia는 精神的 사랑이나 寬容으로 대하는 人間性을 보이려 하나 非情하고 復讐心에만 차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으며, 또한 Venice는 Belmont와는 달라서 萬國인이 드나드는 港口인 만큼 여러나라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遵法精神이 잘 지켜져야만 되었다.

Bassanio는 참다 못해

That malice bears down truth. And I beseech you,
Wrest once the law to your authority:
To do a great right, do a little wrong.
And curb this cruel devil of his will.

[W. 1. 212-215]

라고 若干의 法을 어겨서라도 Shylock와 같이 無道하고 殘忍한 者의 意志를 꺾어달라고 懇請하자, 辯護人은

Por. It must not be; there is no power in Venice
Can alter a decree established:
'Twill be recorded for a precedent,
And many an error, by the same example,
Will rush into the state; it cannot be

[W. 1. 216-220]

이미 立法된 것을 어찌 마음대로 그치며 萬若 그렇게 되면 나쁜 先例를 남기게 되니 그러는 못하겠다는 法律家다운 말인데, 이 말은 앞서 Portia의 慈悲論과 더불어 決코 Shylock을 說服시키거나 有利한 立場을 取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被告와 같이 裁判을 받는 心情인 Portia가 所信의 一語를 表明함으로서 法의 尊嚴性과 公正性을 言及하고, 어찌 物質的인 利害가 精神的 사랑을 超越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試圖할 따름이고, 心中에서는 Shylock을 窮地에 몰아넣을 것을 이미 決定하고 있었다.

表面的으로 Shylock便에 有利하게 돌아가는 듯 하니 Shylock이 氣高萬丈하여 Daniel이 나타났다는 등 讚辭를 아끼지 않는다.

한편 諦念한 Antonio가 죽을 覺悟를 하고 가슴을 헤치고 나서니 實로 아슬아슬한 場面이나 suspense와 緊張이 감돌고 있는 瞬間, Portia의 繼續되는 말은

Por. Tarry a little: there is something else.
This bond doth give thee here no jot of blood;
The words expressly are "a pound of flesh,"
But, in the cutting it, if thou dost shed

One drop of Christiau flood, thy lands and goods
 Are, by the laws of Venice, confiscate
 Unto the state of Venice.

[W. 1. 303-10]

現代的인 法解釋으로는 勿論 贊反이 있을 수 있고, 論告의 正當性 與否도 討議의 對象이 될 수 있으나 元來 Portia가 童話의 公主이고 男使의 親舊를 救出하는데 모든 精力과 機智를 쓴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여기서 言反할 것은 일찌기 Samuel Butler가 한 말이다.

“Logic is like the sword,—those who appeal to it shall perish by it.”

Shylock가 이런 境遇의 가장 좋은 例라 할 수 있다. 論理로만 따지고 人間性이나 道義面을 無視하고 論理대로만 모든 일을 處決하다가는 結局에는 自招한 禍를 冒免할 수 없게 된다.

끝으로 Portia와 Nerissa가 짜고 어떤 報酬보다 約婚할 때 生前을 變지말고 간직하하던 반지를 달라고 한 것은 Bassanio의 友情을 test해 보는 짓국은 응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소리를 죽이는 緊張이 감도는 場面을 풀리게 하는 清凉劑가 될 수 있다.

V. Venice와 Belmont

Venice와 Belmont는 外面으로 볼때 對照가 甚한 高장이다. Venice는 國際貿易港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各種物貨를 싣고와서 賣買하는 產業中心地이며 이미 去來所가 있어 모든 商談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에 反하여 Belmont란 곳은 어찌 보면 消費都市이며 遊興街와 歡樂街 등이 있고 밤을 즐기며 音樂과 浪費의인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곳이니 人生의 歡喜를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곳이다. Lorenzo와 Jessica가 Shylock의 돈을 훔쳐서 이 곳을 찾아 結婚할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앞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이 劇에서 第5幕이 없었다면 *The Merchant of Venice*는 喜劇보다는 悲劇쪽으로 더욱 가까웠을 것이다. 第4幕의 裁判場面에서 아슬아슬한 緊張도, 浪漫的이며 달콤한 달빛아래서 Jessica와 Lorenzo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굳어졌던 表情이 다시 웃음을 찾는다.

Lorenzo

The moon shines bright: in such a night as this,
 When the sweet wind did gently kiss the trees,
 And they did make no noise, in such a night

Troilus methinks mounted the Troyan walls,
And sighed his soul toward the Grecian tents,
Where Cressid lay that night.

Jes. In such a night
Did Thisbe fearfully o'ertrip the dew,
And saw the lion's shudow ere himself,
And ran dismayed away.

[V. 1. 1-8]

以下 繼續되는 愛人들의 對話는 모든 險難하고 힘겨웠던 일을 잊게 한다.

그러나 이 Belmont에서 音樂과 사랑, 달빛아래 속삭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貸金業者 Shylock의 金力에 依해서 可能했고, Lorenzo가 유대인 商人의 딸인 Jessica와 戀愛하게 된 것도 Jessica가 그의 아버지 돈을 훔친 데서 비롯된 것이다.

Venice에서 中心人物인 Antonio와 Shylock은 第5幕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이 그 동안 모아온 돈이 다른사람 卽 親舊나 딸에게는 有效하게 나타나 그것을 빌린 삼아 happy-ending을 이룰 수 있었으나, 그들의 保證人이며 後見人格인 이들에게는 이 Belmont가 起居할 수 없는 고장이다. Venice는 商人들이 雲集하는 法과 秩序의 地域이고 Belmont는 金力을 消耗해야만 되는 사랑의 地域이기에, 嚴格한 法律로 社會의 構造와 機能이 強化된 反面 Belmont는 公開의이며 開放의인 自由人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歡樂의 都市이기 때문이다.

이 劇에서 Antonio와 Shylock를 完全히 除去시켰다면 *The Merchant of Venice*는 *A Midsummer Night's Dream*과 같은 浪漫的인 童話가 될 것이다. 童話의 世界에는 現實과는 달리 外貌와 內面間의 矛盾이나 葛藤도 없고 모든 것이 分明하고 問題가 提示되지도 않는 世界를 말한다.

作家는 Belmont와 Venice를 獨特한 劇意와 唯一한 筆法으로 調和 混合시킨 것은 높이 評價될 수 있는 것으로, 이 劇이 다른 劇보다 많이 읽히고 더욱 頻度있게 上演되는 것도 이런 까닭인 때문일 것이다.

結 語

이 글을 씀에 있어 筆者는 自家撞着과 矛盾됨이 너무 分明함을 느끼게 된다. 平素 게으른 탓도 있겠으나 家事 其他事情으로 序文에서 結語 사이에는 半年以上 歲月이 흘렀다. 勿論 그동안 *The Merchant of Venice*의 本文과 批訣書를 10餘券 以上 읽어 未盡한 것을 補充하려 努力했다.

本是 이 劇은 유대인, 黑人, 被壓迫人, 迫害받는 사람 또는 筆者와 같이 植民地生活을

해 본 사람은 그 不當性과 論理의 矛盾 또는 法解釋의 偏見 等を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劇을 數次 거듭 읽고 著名한 論評들을 읽고나니 좀 다른 角度로 이 作品을 보게 된다. 卽 Elizabeth時代의 基督人들이 지닌 猶太人觀은 憎惡의 對象이고 더구나 高利貸業까지 兼하고 있는 Shylock에게 좋은 感情이 있을 수 있겠는가. 作家는 可及的 中立的 立場에서 그 時代相과 當時의 民心의 動向을 如實히 反映시키는데 成功하였다 할 수 있다.

이 事實은 李朝四色紛爭이 얼마나 激烈하였으며 南北老少派 등이 지금 생각하던 民族間의 질투나 猜忌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며, 그런 末梢의인 일로 國論이 分裂되니 民衆만 塗炭에 빠지게 되는 結果를 招來한 것과 비슷하고, 또한 우리고 目擊하고 있는 東西紛爭 또는 思想戰 같은 것도 아마 몇 世紀 지나고 나면 基督人의 非信仰人에 對한 差別·賤視 以上으로 한낱 우스운 過去之事로 밀릴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時代에 있어 作家는 이미 社會問題 經濟問題를 劇의 主題로 導入시켰다는 것은 그의 天才的 筆致와 함께 先見的 豫見을 尊重해야 할 것이다.

또한 Goethe가 말하듯이 Shakespeare는 비단 劇作家일 뿐 아니라 偉大한 心理學者라는 말은 이 作品을 읽고나면 더욱 뚜렷해지니, 그가 分析한 Shylock, Portia, Antonio, Bassanio 等 重要人物들의 心理가 徹底하게 파헤쳐졌기 때문이다.

이 劇은 Hamlet 다음가는 問題劇임으로, 作家의 立場에서 또는 Elizabeth時代相을 反映시킨 作品으로 先入感 없이 公正한 態度로 이 劇을 理解 吟味해야만 할 것이다.

參 考 書 籍

- Leonard F. Decur, ed., *Shakespear: Modern Essays in Criticism*, Oxford Univ. Press.
- John Wilders, ed., *The Merchand of Venice*, macmillian.
- Harold C. Goddard; *The Meaning of Shakespeare*, Phoenix Books, The Univ. of Chicago Press.
- Lily B. Campbell, *Tragic Heroes: Slaves of Passion*, Bames & Nable, Inc., N.Y.
- Kenneth Muir, ed., *Shakespeare: The Comedi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E.F.C. Ludowyk, *Understanding Shakespeare*, Cambridge at the Univ. Press, 1964.
- Campbell & Quinn, *The Reader's Encyclopedia of Shakespeare*, Thomas Y. Crowell Company, N.Y.
- Frank Kermodé, ed., *Four Centuries of Shakesperian Criticism*, An Avon Library Book.
- Homer A. Watt, Karl J. Holzknécht, & Raymond Ross, *Outlines of Shakespeare's Plays*, Barnes & Noble, Inc.
- Leslie A. Fielder, *The Stranger in Shakespeare*, Stein & Day, N.Y.

- The Plays of Christopher Marlowe*, Oxford Univ. Press, London.
- F.E. Halliday, *Shakespeare and His Critics*, Schocken Books, N.Y.
- C.L. Barber, *Shakespeare's Festive Comedy*,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 Margaret Webster, *Shakespeare Without Tears*, A Pelican Book.
- Caroline Spurgeon, *Shakespeare's Imagery*, Cambridge Univ. Press.
- Edward P. Vandiver, Jr., *Highlights of Shakespeare's Plays*.
- Alexander Leggart, *Shakespeare's Comedy of Love*, Methuen & Co. Ltd.
- Kenneth Muir, *Shakespeare's Sources*. Methuen & Co. Ltd.
- H.B. Charlton, *Shakespearian Comedy*, Methuen & Co. Ltd., London.
- Arthur Mizener, *Teaching, Shakespeare*, A Mentor Book.
- E.K. Chambers, *Shakespeare: A Survey*, A Drama Book.
- F.P. Wilson, *Marlowe and the Early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Abstract》

Revenge vs. Mercy: A Study of *The Merchant of Venice***Che-Ok Chun**

The Merchant of Venice was the first play of Shakespere for me to read in 1937 when I was a sophomore of a college in Japan. It distracted me because I was a young college student learning English literature when Korea was governed by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Of course I didn't favor for Shylock who cared nothing but money for which he was ready to sacrifice his daughter. Some two decades later when I visited London I had a chance to attend the Old Vic Production of *The Merchant of Venice*. I forgot the actor who enacted Shylock hanging more than a dozen of locks in front of his black robe that was enough to cause a disgusting feeling against the usurer Jew. However my feeling and impression of the play has been changed a lot since I taught the play several times since 1957, finding out the sources of the plots of bond story and casket story were originated from an ancient story of Judea being translated into Italian and English. The author has been impartial about the plot taking no sides. Especially the extant trend of the Elizabethan period was well reflected by this play. Portia, a symbol of the Providence as an angel persuading evil, egocentric Jew with the quality of Mercy. It is true she didn't expect him to be friendly with Antonio against whom he bore a deeply-rooted hatred and antagonism. But eventually mercy could prevail over the justice which is manipulated by human device. Also I was highly impressed by Goethe's remark that Shakespeare was not only a playwright but a psychologist. He could so thoroughly analysed the hearts of the main charcters, such as Shylock, Portia, Antonio and Bassanio. So remarkable is the fact that this play is maintaining the popularity only second to *Hamlet*. It is so desirable that any reader trying to appreciate this play must beforehand get rid of any prejudice or preconcept against Christian or Jews.